

JAPAN

#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2011년도 일본 콘텐츠산업진흥정책』

### ◎ 일본정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 발표

- 고속 커뮤니케이션이 보급되면서 끊김 없이(seamless) 전세계로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
- 3/11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일본정부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성장전략으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1'를 발표함
- 새롭게 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을 상세히 정리분석함으로써 일본콘텐츠산업진흥정책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진흥정책수립에 참고하자고 함

※지적재산추진계획2011(지적재산전략본부, 2011.6)

### ◎ 작성순서

- 새로운 콘텐츠산업환경과 전략방향
- 글로벌네트워크시대의 지적재산전략
  - .국제표준화 스테이지업 전략
  - .지적재산 이노베이션경쟁전략
  - .최첨단 디지털네트워크 전략
  - .쿨재팬전략
- 시사점

## 1. 새로운 콘텐츠산업환경과 전략방향

### ■ 커다란 시대변화와 지적재산 이노베이션의 필요성

####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와 역동적인 세계의 변화

- 세계가 다극화되고, 정보, 자본, 물자, 기술, 인재가 더욱 자유롭고 신속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국 내에서 완결되었던 것이 국경을 넘어 Seamless하게 세계로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시대'가 도래
- 고속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시장

에서 경쟁격화와 급변하는 소비자니즈로 신속한 이노베이션이 요구되는 한편, 세계적으로 '오픈', '글로벌', '플랫'한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전후의 일본산업은 수직통합형 팀워크 및 조직력을 최대한 앞세워 슬림하고 정치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이었음.
- 지금은 글로벌 기업간 제휴가 중시되고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그 기반이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 ○ 일본의 위기, 동일본대지진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

- 십수년 동안의 경제침체로 국내총생산의 성장은 멈췄고 2010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란 자리도 중국에게 물려주었음.
-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일본 경제 전체에 3가지 충격을 가져왔음.
- 하나는 지진, 해일, 원자력 재해 등 복합적인 재해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경제 순환 단절로 인한 공급 충격, 둘째는 다수의 발전 시설 파괴로 인한 전력 감소, 셋째는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방사선 피해를 계기로 일본제품과 일본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임.
-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찬스가 될 수 있음.
- 종합적인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에 입각해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야 함. 예를 들면, 일본인의 미의식이나 뛰어난 문화적 전통은 일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글로벌화, 보더레스화가 진행되어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복제할 수 없는 지역 고유의 아이덴티티에 기초한 그 토지·그 지역에만 있는 것의 가치가 높아짐
- 'COOL JAPAN!'이라는 말처럼, 일본 고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최첨단의 클라우드와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해 리스크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구차원의 자원.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더욱 유연하고 강력한 차세대형 공급체인을 구축해가야 함.
- 기능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문화에 입각한다면 새로운 찬스가 생겨날 가능성도 큼. 일본이 최첨단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및 세계 각국과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흐름의 교차점으로 서 주요한 허브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

###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적재산전략

- 첫째, 국제표준화의 스테이지업 전략임. '지(知)를 이용한 지(知)'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은 우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비즈니스적인 성공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함. 이를 위해 기업은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표준화를 활용해 가는 것이 필요함. 7개 국제표준화특정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화전략의 꾸준한 실행과 끊임없는 검증을 거듭하면서, 국제표준화의 스테이지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동시에 동일본대지진의 경험.교훈을 국제표준으로 적절히 반영함.
- 둘째, 지적재산이노베이션 경쟁전략임. 3.11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를 비롯한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함.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인재를 모아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중핵이 되는 지적재산시스템을 발전시켜 글로벌한 구심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사업화.산업화를 위한 지(知)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기반정비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셋째, 최첨단 디지털 네트워크 전략임. 디지털 네트워크의 심화.발전에 따라서 전자서적, 클라우드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음. 대형재해 등의 위기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최첨단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둘러싼 경쟁을 위한 전략 구축과 기반 정비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됨.

- 넷째, ‘쿨재팬’ 전략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은 성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쿨재팬’을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에 묻혀 있는 '지적재산'을 발굴.창조해, 세계로 발신하고 인기를 확대해 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립함과 동시에 기반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국민일체가 된 쿨재팬을 강력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 2.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적재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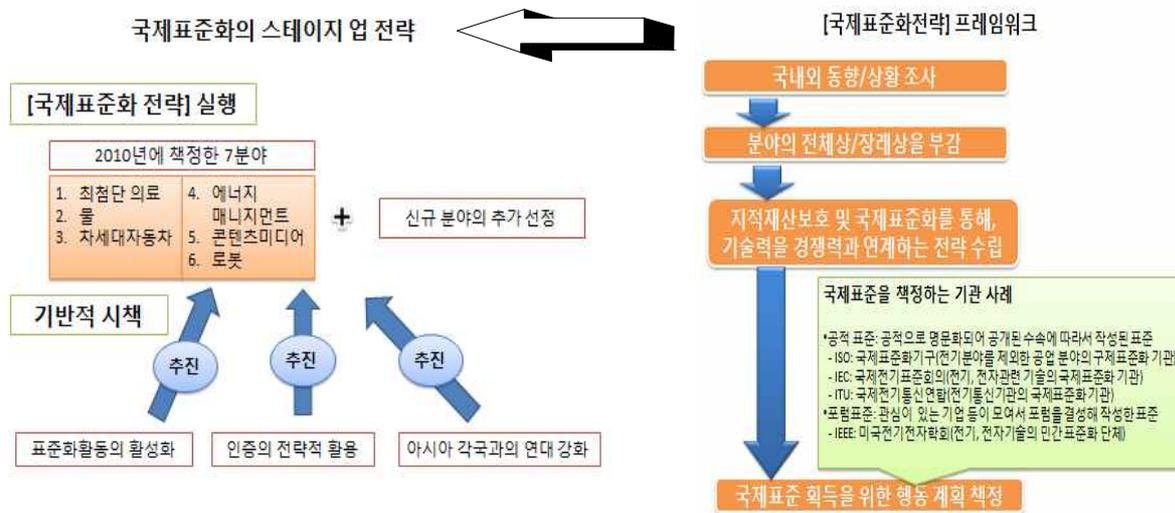
### ■ 전략1 : 국제표준화의 스테이지업 전략

#### ○ 전략방향

- 각 기업이 전략적인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실시해, 국제표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2010년에 책정한 7개 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략의 실행.검증 실시
- 국제표준화전략의 실행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적 시책을 추가.확충

#### ○ 중점대책

- 7개분야(첨단의료, 물, 차세대 자동차, 철도, 에너지 매니지먼트, 콘텐츠미디어, 로봇)의 국제표준화 전략 실행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표준화특정전략분야를 선정
-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 .국제표준화 활동 참가의 촉진
  - .국제표준화 기관간 회의 유치
- 인증의 전략적 활용
  - .국제표준화.인증을 목표로 연구개발의 촉진
  - .인증기관의 능력향상
- 아시아각국과의 협력강화
  -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실험사업



○ **목표(2020년)**

- 연구개발, 사업화전략과 연계한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과 지적재산권의 획득.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제표준화 특정전략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획득함
- 국제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제시된 액션플랜을 꾸준히 이행하고 각특정전략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
- 국제표준화기관 간사국 접수건수 증가(74건→150건)

■ **전략2 : 지적재산 이노베이션 경쟁 전략**

○ **전략방향**

- 각국의 '지적재산 시스템'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 일본의 '지적재산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선도함

○ **중점대책**

- 일본의 '지적재산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 .아시아.세계에서 신뢰받고 활용되는 지적재산 환경의 정비를 위해 국제적인 영어예비심사의 추진, 국제심사관협회의 추진
- 일본이 만들어내는 '지'(知)의 활용촉진
  - .원스톱 상담창구를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며 세심한 지원체제의 정비(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공모를 통해 설치)

- .SBIR(벤처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를 원스톱 지원하는 제도)에서 다단계 선발방식의 도입
-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지적재산매니지먼트의 추진 지적재산전략을 떠받치는 인재의 육성 및 확보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적재산 인재육성계획의 수립



○ 목표(2020년)

- 성과

- .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신규 사업을 창출.
- .기술수출액을 약 2조엔(2008년)에서 약 3조엔(2020년)으로 증가.
-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닷치탑(niche top)사업을 다수 배출.
-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약 10조엔(2008년)에서 약 14조 엔(2020년)으로 증가시킴

※niche top이란 소규모 틈새시장에서 압도적인 세어를 차지하는 기업

- 목표설정 (2020년)

- .국제특허출원분야에서 일본이 국제조사를 관할하는 국가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해외사업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특허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해외특허출원비율을 높임.
- .일본/미국/유럽/한국/중국의 5개국 특허청간 공통의 특허조사기반 정비
-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의 이용 가능성을 높임

(약70%에서 90%로)

.중소.벤처기업에서 특허제도이용자의 저변을 넓힘(새롭게 특허 출원을 한 중소기업 수(누계): 약3만 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출원 건수를 늘림(약0.8만 건에서 1.2만 건 이상으로)

### ■ 전략3 : 최첨단 디지털 네트워크 전략

#### ○ 전략방향

- 콘텐츠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가 글로벌하게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디지털 네트워크사회를 개척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

#### ○ 중점대책

- 전자서적의 보급촉진, 지적 자산의 디지털 활용 활성화
  - .다양한 단말기기가 등장하고 세계적인 전자서적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확대(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약 90만권)의 국립도서관 및 인터넷 서비스, 전자서적시장의 정비 가속, 지적 자산의 아카이브화 및 활용촉진)
-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추진기반의 정비
  - .구입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한 클라우드형 서비스가 보급될 전망(클라우드형 콘텐츠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법적 리스크해소, 플랫폼 경쟁환경의 정비)
- 글로벌 침해대책의 강화
  - .저작권 침해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해외 저작권침해콘텐츠의 조기삭제시스템 구축(국제적 틀을 통한 검토, 해외사이트에 대한 대응, 외국정부에 대한 촉구))
- 디지털창작기반의 강화
  - .저렴한 디지털제작툴 및 SNS 보급을 통한 2차 창작의 진전(2차 창작 활성화를 위해 패로디 및 인터넷상의 공동창작에 관한 법적 과제 검토, 젊은 크리에이터의 육성)

○ 목표(2020년)

- 디지털 네트 콘텐츠 비즈니스 (신규 비즈니스를 포함)의 시장 규모가 약 1.4 조엔(2008년)에서 약 7조 엔으로 확대
- 서적, 방송 프로그램의 8할 정도가 전자 매체에서도 전송됨
- 저작권침해 콘텐츠의 유통량을 8할 정도 감소시킴
- 일본 콘텐츠의 글로벌 전송비즈니스가 확립되어, 매출이 1,000억 엔을 넘음
- 아동들이 수업에서 1인 1대의 각종 정보단말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전략4 : Cool Japan! 전략

○ 전략방향

-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의 콘텐츠, 패션, 산품(產品), 식(食), 전통문화, 디자인 등의 '쿨 재팬'(Cool Japan : '멋있는 일본')을 추진해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

○ 중점대책

- 쿨 재팬을 발굴·창조한다
- .일본의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의 매력을 담은 쿨재팬 영상콘텐츠 및 3D를 비롯한 하이테크 및 기획력을 활용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전세계에 발신
- .해외진출 펀드를 통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작품제작을 지원
- .국제공동제작 지원, 아시아 각국을 비롯 세계 각국과 국제공동제작협정을 체결
- . '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 서밋',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중일 영상교류사업('영화, TV주간', '애니메.페스티벌')등 아시아 지역내 교류의 장을 통해 국제공동제작 및 외국의 규제완화촉진, 일본 콘텐츠유통 활성화를 도모
- .콘텐츠, 패션, 식(食), 주택, 관광, 지역특산품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각국의 니즈에 맞는 글로벌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

- 쿨 재팬을 글로벌로 발신한다

- .쿨재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담당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설치하고 해외에서 쿨재팬을 홍보하는 어드바이저를 네트워크화해 전략적으로 정보를 발신
- .코페스타(콘텐츠관련이벤트를 일정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붙인 통합브랜드), 미디어예술제, 각종 견본시 등과 같은 국내 이벤트 해외홍보강화, 외국인유치하기 위한 사업 추진, 해외견본시 출품 강화
- .런던올림픽 및 기념사업(예 미일벚꽃기증100주년사업)등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활용해 정부횡단적으로 쿨재팬을 홍보하는 체제를 확립, 또한 지자체와 연합해 지역의 쿨재팬을 홍보하는 체제확립
- .다언어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발신, 국내외 쿨재팬관련 이벤트, 동일본대지진복구캠페인, 해외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해외에 대지진 복구 관련 정보를 발신, 국내에서 쿨재팬을 통한 창조적 부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보를 발신
- .이미지전략의 일환으로 쿨재팬관련 포털사이트에 의한 다언어 발신 강화 및 로고마크 작성을 포함한 통일 이미지에 의한 발신 추진
- .세계적인 유명인사를 초대해 문명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전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발신함
- .방송프로그램등 영상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민연합의 컨소시엄을 설치하는 동시에 현지어 대응을 포함해 민간에 의한 해외발신을 지원함. 또한 원활한 권리처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제정을 위한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쿨재팬의 대외정보 발신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및 지역의 위성방송 및 케이블TV를 통한 국제방송의 보급활동을 지원
- .일본발착(發着)의 국제항공노선에서의 쿨재팬 관련 영상제공을 추진
- .영향력이 큰 영화, 드라마, 게임을 활용해 작품속에 패션 및 식(食)등 쿨 재팬이 노출되도록 민간의 활동을 촉구

- 쿨재팬의 인기를 확대시킨다

- .일본의 식(食)에 관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도모하

- 는 동시에 국내검사체제의 강화,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발행 구축체제를 확립
- .일본관광의 회복을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 및 관광이벤트 지원을 강화
- .풍평피해(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제품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고 국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출품에 대해 방사선량검사비용을 보조함
- .재외공관을 통해 적절한 정보발신과 부적절한 보도에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잉규제가 되지않도록 외교루트를 통해 해외당국에 촉구함
- .**'쿨재팬 대상'** 표창을 통해 쿨재팬의 인기를 확대함
- .관광객 및 비즈니스맨 가운데 일본팬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제견본시와 연동해서 쿨재팬을 테마로 한 방일여행루트를 개발함**
- .지역활성화 및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사적의 복원.공개 및 지역전통예능등 일본각지의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활동을 지원
- .각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시너지를 위해 일본에서 개최하는 국제견본시의 활성화를 지원함
- .**해외프레스, 유명블로거,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쿨 재팬의 인기 확대**
- .고품질의 일본농림수산물 및 식품에 대해 이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의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결론을 내림**
-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각국에 대해 ACTA(모방품.해적판확산방지조약(가칭))의 참가를 촉진함.**
- 쿨재팬의 기반을 정비한다
  - .문화자원, 관광자원, 정보통신기반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
  - .크리에이티브 거점정비를 비롯한 쿨재팬관련 다양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관계자의 요청을 토대로 해당지역내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함.
  - .권리자의 협력하에 피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 낭독서비스, 이동도서관 서비스 제공등 공동도서관 활동을 촉진함

- .아시아시장을 비롯 해외각국에서 콘텐츠 및 식(食) 관련 규제완화.철폐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실현함
- .현지니즈를 토대로 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국가 및 도시를 선정하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관계기관 및 민간이 연대하는 '쿨재팬지원 태스크포스'**(가칭)를 만듦. 또한 쿨재팬에 관한 민간의 해외활동시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시설제공 및 대사를 비롯한 외교적인 프레즌스 및 현지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실시
-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인, 예술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쿨재팬 발신을 위한 기반을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에서 검역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설을 정비함
- .일본을 아시아 및 세계에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중심적 발신지로 삼기 위해 **수도 도쿄의 브랜드 재확립 및 지역내 크리에이티브 거점 정비**를 추진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재(人財)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듀서 육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 실무에 정통한 **'엔터테인먼트 로이어스 네트워크'**와 **콘텐츠사업자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대책을 강화
- .젊은 크리에이터에 제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육성을 추진
- .콘텐츠분야에서 전문학교 및 대학과 산업계가 연대하는 산학컨소시엄을 설치하고 사회인이 배우기 쉬운 학습체계의 도입도 포함해 실천적인 직업능력을 키우는 학습시스템을 구축
- .**해외크리에이터를 초청해 크리에이터간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일본 각지에 해외크리에어터의 **창작활동거점(Artist in Residence)**을 마련.
- .콘텐츠분야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학교방문기회를 확충하고 **아동시절부터 다양한 예술문화표현을 체험**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능력 및 다양한 작품의 참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학교교육에서 창작활동, 지적재산교육 및 정보모럴교육**(정보사회에서 적정하게 활동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생각 및 태도를 몸에 익히기 위한

교육)을 강화

○ 목표(2020년)

- 일본의 쿨재팬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가 약 4.5 조 엔(2009년)에서 17조 엔(2020년)으로 확대
-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 새롭게 연간 1조 엔

쿨 재팬 전략



의 수입을 거둬

- 연간 일본방문 외국인관광객 수를 약 861만 명(2010년)에서 2,500만 명으로 늘림
- 일본의 국제컨벤션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를 약 6.5만 명(2010년)에서 30만 명으로
- 해외콘텐츠 규제의 해금/완화를 실현
- 약 1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과 동일본대지진 긴급 대책

○ 개요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은 정책추진지침(2011년 5월 17일 각료회의 결정)에 입각해 심각한 위기인 동일본대지진발생 이후 새로운 국

가성장전략으로 지적재산전략을 재설계한 것임

- 특히 '쿨 재팬'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임. 국민이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임하는 자세는 실로 '쿨 재팬'이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발신시켜가는 것이 중요
- 일본이 다시금 일어서서 지적자산을 활용해 전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국민일체가 되어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 ○ 긴급대책

- 일본 브랜드의 회복(쿨재팬 전략)
  - .일본식(食).관광에 관한 이미지 회복(정확한 정보 발신, 풍평피해의 방지, 검사체제의 정비, 검사비용의 지원)
  - .제조(모노츠클리)지원(중소기업의 지원)
- 지적재산에 관한 구제·상담(지적재산 이노베이션 경쟁 전략)
  - .지진대응 전용창구 설치와 피해 지역 상담 창구와의 연계
  - .산업재산권에 관한 수속기간의 연장
  - .해외지적재산청의 긴급 구제조치 요청(미·중·한을 포함한 45개국/지역 대응 완료)
- 일본의 부흥에 관한 정보 발신(쿨재팬 전략)
  - .일본의 부흥 캠페인 실시(로고마크, 포털사이트)
  - .국내외 이벤트를 통한 발신강화
  - .다양한 기회/수단을 활용해 발신('문화교류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앰버서더'를 통한 발신)
- 동일본 부흥/재생(쿨재팬 전략)
  - .전통공예품의 브랜드화(세계적 유명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지원)
  - .지역의 매력/문화/산업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Artist in Residence, 크리에이티브 거점의 정비)
  - .관광 이벤트 지원
-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국제표준의 재검토(국제표준화의 스테이지업 전략)

## 4. 시사점

- 일본은 '지적 재산'이란 보다 거시적 카테고리에 '콘텐츠'를 두고 있으며 '지적재산' 차원에서 콘텐츠산업을 접근하고 있음.
- '지적재산추진계획'은 매년 수립·발표되며 이를 통해 정책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고 있음.
- 2010년과 비교해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에서는 '글로벌네트워크시대의 도래'를 전제로 일본의 지적재산의 이노베이션, 디지털 네트워크시대, 쿼재팬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진출시키는 '쿼재팬전략'이 새롭게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추진전략의 4대전략의 축으로 편입된 점이 특징임.
  - 동일본대지진 복구대책 차원에서 지적재산전략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특징임.

년도	2010년	2011년
전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의 획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li> <li>- 콘텐츠강화를 축으로 한 성장전략의 추진</li> <li>- 지적재산의 산업횡단적 강화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화 스테이지업 전략</li> <li>- 지적재산 이노베이션 경쟁전략</li> <li>- 최첨단 디지털 네트워크 전략</li> <li>- 쿼재팬전략</li> </ul>

- 특히 쿼재팬전략은 콘텐츠산업영역만이 아니라 비콘텐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產品), 식, 전통문화, 디자인 등을 해외진출전략의 테두리 내에 포함시켜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음.